

大學博物館의 社會文化的 機能과 使命

鄭 永 和*

目 次

I. 序 言	(3) 연구기능
II. 大學博物館의 現況	IV. 社會文化的 機能 2
III. 社會文化的 機能 1	(1) 전시기능
(1) 수집기능	(2) 교육기능
(2) 보존기능	V. 結 論

I. 序 言

1961年 5月 5日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結成된 후 今年에 이르러 創立 25周年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大學博物館의 機能과 使命이라는 主題로 學術發表를 갖게 되었다.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發足될 當時에는 모두 18個의 大學博物館이 參與하였는데, 그동안 長足の 發展을 이룩하여 現在는 58個의 大學博物館이 이 協會에 會員으로 참가하고 있다.

이렇게 大學博物館의 수가 증가한 것은 1967年 6月 17일에 공포된 文敎部의 教育基準令이나 1970年 1月 20일에 개정된 大統領令인 大學設置基準令에 영향을 받은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사라져 가는 조상들의 귀중한 文化遺産을 보존하고 이를 教育的으로 活用하고자 하는 민족적인 자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대학박물관 뿐만 아니라 국·공립 사립박물관도 증가 일로에 있는 추세인데, 이는 60년대초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된 이후 꾸준하게 발전되어 온 경제사회분야가 문화전반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유의 文化와 歷史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우선 각 지역에 위치한 대학박물관이 국·공립 박물관보다 數적으로도 많아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입장이며, 또 국·공립 박물관이 없는 곳에서는 이를 대신해서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中心的인 役割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韓國大學博物館協會가 創立 25周年을 맞이하여 大學博物館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와 現況, 그리고 대학박물관이 스스로 해야 할 일과 社會에 공헌해야 할 일을 教育, 研究, 社會文化별로 문제를 제기시키고 토론하게 된 것은 대학박물관의 발전을

* 嶺南大學校 博物館長

위해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筆者가 言及하고자 하는 것은 대학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이며, 이것은 일반박물관이 하는 일과 같은 성격이지만 현재로서는 대학박물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地域社會에 社會敎育과 文化的으로 기여해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86 아시안게임 때에는 각 대학박물관의 사정으로 모두가 文化祝祭에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국가행사에 대학박물관들이 社會文化的으로 공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국내외 관람객들이 다녀갔다. 다가 오는 '88 올림픽 때에는 가능한 한 많은 대학박물관이 文化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어 대학박물관 자체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轉期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대학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은 이 기능만을 따로 떼어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즉 蒐集·保存·研究·展示·敎育 등이 조화있게 잘 이루어져 社會에 공헌할 때 비로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筆者는 大學博物館이라는 特性때문에 여러가지로 제약을 받게 되는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박물관은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보다 더 社會文化的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다. 대학은 사회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敎育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며, 박물관 역시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봉사하며 기여하는 것이 사명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은 더욱 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앞으로 大學博物館의 社會文化的 機能에 대한 설명은 박물관이 기본적으로 행하고 있는 일들을 中心으로 한가지씩 구체적으로 언급해 나가겠으며, 그 중에 設問紙를 이용해 각 대학박물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들도 함께 병용하겠다.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돌린 설문지의 내용은 모두 5항으로 되어 있으며, 공주사범대학의 安承周 館長이 대학박물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돌린 설문지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 안승주 관장께 감사의 뜻을 表한다. 설문지는 모두 58個의 대학박물관에 다 보냈으나, 회수된 것은 50個의 대학박물관에서만 보낸 것들이다.

II. 大學博物館의 現況

구체적인 대학박물관의 현황은 公州師範大學의 安承周 館長이 설문지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서 지적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고, 그대신 어떠한 대학박물관들이 어떤 지역에서 地域社會의 文化 발전을 위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우선 地理的 分布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한다(1985년 12월 말 기준).

1. 서울지역(가나다順)

- 1) 建國大學校 博物館
- 2) 慶熙大學校 博物館
- 3) 高麗大學校 博物館

- 4) 國民大學校 博物館
 - 5) 檀國大學校 博物館
 - 6) 德成女子大學 博物館
 - 7) 東國大學校 博物館
 - 8) 同德女子大學 博物館
 - 9) 西江大學校 博物館
 - 10) 서울大學校 博物館
 - 11) 서울시立大學校 博物館
 - 12) 成均館大學校 博物館
 - 13) 誠信女子大學校 博物館
 - 14) 世宗大學校 博物館
 - 15) 淑明女子大學校 博物館
 - 16) 崇實大學校 博物館
 - 17) 延世大學校 博物館
 - 18)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 19) 陸軍士官學校 博物館
 - 20) 韓國外國語大學校 博物館
 - 21) 漢陽大學校 博物館
 - 22) 弘益大學校 博物館
- 以上 22個 大學博物館

2. 仁川·京畿지역

- 1) 仁荷大學校 博物館
 - 2) 京畿大學校 博物館
 - 3) 明知大學校 博物館
- 以上 3個 大學博物館

3. 江原지역

- 1) 江陵大學 博物館
 - 2) 江原大學校 博物館
 - 3) 關東大學 博物館
 - 4) 翰林大學 博物館
- 以上 4個 大學博物館

4. 忠北지역

- 1) 清州教育大學 博物館
- 2) 清州大學校 博物館

- 3) 忠北大學校 博物館
 - 以上 3個 大學博物館
- 5. 忠南지역
 - 1) 公州教育大學 博物館
 - 2) 公州師範大學 博物館
 - 3) 忠南大學校 博物館
 - 4) 韓南大學校 博物館
 - 以上 4個 大學博物館
- 6. 全北지역
 - 1) 群山大學 博物館
 - 2) 圓光大學校 博物館
 - 3) 全北大學校 博物館
 - 4) 全州教育大學 博物館
 - 以上 4個 大學博物館
- 7. 全南지역
 - 1) 木浦大學 博物館
 - 2) 全南大學校 博物館
 - 以上 2個 大學博物館
- 8. 大邱·慶北지역
 - 1) 慶北大學校 博物館
 - 2) 啓明大學校 博物館
 - 3) 大邱大學校 博物館
 - 4) 曉星女子大學校 博物館
 - 5) 安東大學 博物館
 - 6) 嶺南大學校 博物館
 - 以上 6個 大學博物館
- 9. 釜山·慶南지역
 - 1) 東亞大學校 博物館
 - 2) 東義大學校 博物館
 - 3) 釜山大學校 博物館
 - 4) 釜山產業大學校 博物館
 - 5) 釜山女子大學 博物館
 - 6) 慶南大學校 博物館
 - 7) 慶尙大學校 博物館

8) 昌原大學 博物館

9) 海軍士官學校 博物館

以上 9個 大學博物館

10. 濟州지역

1) 濟州大學校 博物館

以上 1個 大學博物館

지금까지 韓國大學博物館協會에 1985년 12월말 會員으로 되어 있는 全國 58개 대학박물관의 지역 分布를 살펴보았는데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곳이 서울지역으로 總 22개의 대학박물관이 있으며, 전체의 37.93%를 차지하고 있다. 두번째로 많은 곳이 釜山·慶南지역으로 9개의 대학박물관이 있고, 전체의 15.52%를 보여 준다. 세번째는 大邱·慶北지역인데 모두 6개의 대학박물관이 전체의 10.34%를 차지한다. 네번째는 강원·충남·전북지역으로 각각 4개의 대학박물관이 있으며, 전체의 6.89%씩이다. 다섯번째는 仁川·京畿지역과 忠北지역으로 각기 3개의 대학박물관이 있고, 전체의 5.17%씩이다. 여섯번째는 全南지역인데 2개의 대학박물관이 있고 전체의 3.45%이다. 끝으로 일곱번째는 제주도지역으로 1개의 대학박물관이 있고 전체의 1.72%이다. 이상과 같이 각 대학박물관의 지리적 分布를 우선 파악해 봄으로써 대학박물관이 장차 어떤 方向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効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를 대략 타진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먼저 서울지역을 보면 대학의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大學博物館의 數도 현재 제일 많은 22個인데 대부분의 대학박물관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綜合博物館의 性格을 띠고 있다. 대학박물관은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시설이 中心이므로 종합박물관으로서 機能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서울에 있는 대학박물관들이 모두 비슷한 성격의 遺物들만을 展示하게 된다면 지역사회의 일반대중들로부터 크게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각 대학박물관들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종합박물관이면서 특징있는 박물관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박물관들은 서울지역의 고유한 歷史·考古·美術·人類·民俗·自然 등에 관한 모든 文化 遺産을 어느 지역의 박물관보다도 더 많이 重點적으로 조사·연구·발굴·보존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서울에 있는 대학박물관 중에서 綜合博物館 또는 專門博物館의 性格을 띠면서 특징있는 자료들을 보존 혹은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과 그 자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의 민속자료
- 2) 단국대학교 석주선 민속박물관의 궁중·민속의상자료
- 3) 동국대학교 박물관의 불교관계 미술자료
- 4)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선사자료
- 5)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의 과학사 관계자료
- 6)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전통미 및 생활양식자료
- 7) 숭실대학교 박물관의 청동기·기독교 관계자료
- 8) 연세대학교 박물관의 구석기자료

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의 전통미술공예자료

10) 육군사관학교 박물관의 전통武器자료

11) 홍익대학교 박물관의 미술자료

위에 언급한 대학박물관의 보존·전시자료들은 매우 다양하고 특색있는 것들로서 각 대학박물관의 성격과 방향을 잘 나타내 주고 있으며, 그 중에는 전문박물관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밖에 서울 지역의 다른 대학박물관들은 학교 실정에 맞게 종합 또는 전문박물관의 기틀을 잘 다져 나가고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서울지역의 대학박물관들은 그 대부분이 학생들의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징적인 박물관으로 자리를 잡아간다고 보아도 되겠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文化遺産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집·보존·연구·전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

둘째, 仁川·京畿지역에 있는 3個의 대학박물관들은 仁川의 市立博物館을 제외하고는 다른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活動이 기대된다. 서해 도서지방과 경기 내륙지방에 흩어져 있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文化遺蹟 遺物들을 우선적으로 조사·연구·수집·보존해야 할 입장이라고 본다. 인하대학교와 경기대학교 박물관은 현재 민속자료가 특징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명지대학교 박물관은 종합적으로 유물들을 수집·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장차 이 지역에 있는 대학박물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바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강원도지역에 있는 4개의 대학박물관들은 이 지역의 모든 文化遺産들을 전반적으로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할 수 있겠으나, 대략 강릉대학과 관동대학의 박물관은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문화권에 중점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의 박물관은 강원 내륙지방에 있으므로 이곳에 더 비중을 두어도 좋겠다. 강원지역에는 현재 대학박물관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크게 기대된다. 현재 관동대학의 박물관은 민속자료가 특징이고,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 박물관은 이 지역 선사자료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으며, 강릉대학 박물관은 종합적인 소장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네째, 충북지역에는 대학박물관이 3개 있는데, 이들의 활동범위는 주로 소위 중원문화권이 되었고, 이 지역에 있는 구석기 유적부터 근대까지 해당되는 중요한 문화유적 유물들을 조사·연구·수집·보존하고 있다. 충북대학교 박물관 자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소장품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지역에서 발굴한 구석기 자료를 꼽을 수 있다. 청주대학교 박물관은 이 곳의 역사자료가 특징적이라고 보며, 멀지 않아 이 지역에 국립청주박물관이 개관되어도 대학박물관의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충남지역에 있는 4개의 대학박물관은 그 활동범위를 서해안지역과 충남내륙을 중심으로 잡을 수 있으며, 이곳에 있는 모든 문화유적과 유물들을 대상으로 조사·연구·수집·보존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백제의 古都인 공주·부여를 中心으로 한 역사유적이 풍부한 곳이므로 이와 관련된 학술적인 조사는 대학박물관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의 하나이다. 충남대학교 박물관은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성격을 띠면서 이 지역 역사자료가 특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공주사범대학 박물관도 백제자료를 특징적인 것의 하나로 들 수 있다. 그밖의 대학박물관은 이 지역의 전통문화유

산을 꾸준히 연구·조사·수집·보존하고 있다고 하며, 이 곳의 대학박물관은 국립공주, 부여박물관과는 다른 특징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믿어진다.

여섯째, 전북지역에 있는 4개의 대학박물관은 우선 지리적 여건으로 보아 서해 도서 및 전북 내륙지방을 中心으로 박물관의 조사연구와 수집·보존활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주로 百濟, 馬韓文化圈에 속하는 자료들을 수집·보존하는데 힘써 온 것으로 보인다. 원광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박물관은 종합적으로 유물을 수집·보존하면서도 각각 이 지역의 불교 역사자료와 민속역사자료를 특징으로 전시하고 있다. 또 이 지역에는 전주시립박물관이 있어 여러가지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대학박물관의 역할은 다양하므로 꾸준한 활동을 통해 시립박물관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적인 대학박물관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공헌해야 될 줄로 믿는다. 군산대학교 전주교대의 박물관은 학교 실정에 맞게 계속 이 지역의 文化遺物을 수집·보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일곱째, 전남지역에는 2개의 대학박물관이 있으며, 이들이 중점적으로 조사·연구·수집·보존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서남해안 도서와 영산강 유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국립광주박물관을 제외하고 2개의 대학박물관 밖에 없기 때문에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 박물관의 활동이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크게 기대되는 곳이다. 그동안 전남대학교 박물관은 영산강 유역의 선사유적 조사가 활발하였고, 목포대학 박물관은 현재도 서남해안과 도서지역에서 선사유적 조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의 조사결과는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하다.

여덟째, 대구·경북지역은 전국에서 대학박물관이 3번째로 많은 곳으로 모두 6개의 대학박물관이 있지만, 반대로 국·공립박물관이나 사립박물관은 대구지할시에는 한 개도 없고, 경주에 국립박물관이 하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있는 대학박물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社會文化的 기능도 대구같은 큰 도시의 대중을 위해서는 더욱 이를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대구·경북지역에 있는 대학박물관의 활동영역은 낙동강 中上流, 즉 경북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되겠으며, 일부는 동해안이 포함된다. 이 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특히 신라·가야문화에 관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대학박물관들은 종합박물관으로서의 역할도 해야겠지만 자연히 신라·가야문화유적조사와 유물수집에 중점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효성여자대학교의 박물관은 차이가 있지만,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띠면서 신라·가야문화자료가 특색을 이룬다. 그러나 안동대학 박물관은 그 지역의 특성으로 민속자료가 강조되고 있다.

아홉째, 부산·경남지역에는 서울지역 다음으로 대학박물관이 두번째로 많은 總 8개의 대학박물관이 있다. 그래서 부산에 시립박물관과 진주에 국립박물관이 하나씩 있어도 이 지역 대학박물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곳 대학박물관의 활동영역은 경남지역 전체가 되나 주로 낙동강 하류와 동남해안 및 도서지역이 中心이 된다. 주로 낙동강 하류지역에서는 신라·가야문화권에 속하는 자료들이 조사·수집되고, 해안도서 쪽에서는 선사유적 유물들이 조사된다. 이 지역의 대학박물관들도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선사 및 가야시대 자료들이 특징이다. 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의대학교 창원대학의 박물관들은 이 지역의 선사 및 가야 유적유물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밖에 부산산업대학교, 경남대학교,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은 종합 또는 전문분야의 유물을 학교 실정에 맞춰 수집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지역에 하나 있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제주도의 선사유적을 주로 조사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

Ⅲ. 社會文化的 機能 1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물관 활동의 기본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의 기능이 서로 유기적으로 조화있게 이루어져야 제대로 그 기능이 나타난다. 한마디로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이란 대학박물관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공익을 위해 사회교육과 문화행사를 통해 봉사하고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박물관의 이러한 기능은 다른 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과 동일한다.

여기서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수집·보존·연구의 기능이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여러가지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사회문화적 기능 1에 포함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1) 수집기능

박물관의 蒐集기능은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모든 種類의 遺物을 대상으로 수집활동을 해야 하므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 다른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대학박물관도 유물을 수집하려면 구입, 기증, 발굴 등을 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직접·간접으로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박물관이 설립된 것은 1934년의 일인데, 지금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에 한 독지가가 희사한 돈을 기본으로 당시 일제하에 흩어지고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많은 民族文化財를 구입·보존하여 민족문화를 수호하고 대학의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애국적인 정신에서 발달된 것이다. 그러므로 초창기에 생긴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주로 유물들을 구입하여 蒐集하였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경제력이 있던 뜻있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귀중한 民族文化財를 구입하여 민족문화 보호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아직도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이 유물을 수집하는 방법의 하나로 유물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물수집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밑바탕에는 위와 같은 정신적 맥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많은 대학박물관들이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대학박물관의 초창기처럼 중요한 문화재는 한 개인 또는 단체의 소유물이기 전에 社會 전체의 문화재로서 공익을 위해 잘 보존되고 널리 활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에서 값비싸고 귀중한 유물들만을 구입하여 외부의 자랑거리와 학교의 재산으로만 생각한다면 유물을 수집하는 본래의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귀중한 문화재의 침해를 살리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물을 구입해서 수집하는 근본정신이 중요한 것이며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유물구입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특히 유물을 구입하는 것은 중요한 문화재가 해외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고 보겠지만, 반면에 많은 대학박물관들이

유물 수집을 구입에만 의존한다면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오히려 도굴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는 부정적인 면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값싼 것이라도 교육과 학술연구에 필요한 것이면 구입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은 박물관의 유물수집에 본격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가끔 대학박물관에 그 지역의 뜻있는 분이 귀중한 소장품을 기증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증되는 문화재야말로 대학박물관을 통해 지역사회에 크게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명실공히 사회 전체의 문화재로서 모두를 위해 영구히 보존되고 널리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귀중한 문화재를 기증해 주는 분의 뜻을 받들어 대학박물관이 기증된 유물을 영구 보존하고 또 일반에게 전시하여 널리 알리는 것은 그 지역에 사회문화적으로 양자가 모두 큰 영향을 주는 일이므로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은 기증자와 수증자가 모두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이런 훌륭한 일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겠다.

유물을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로 遺蹟의 發掘調査를 통해 직접 유물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다. 박물관의 연구기능 중 유적의 발굴조사는 핵심적인 기능이며, 동시에 유물의 수집기능과도 직접 관련된다.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유물을 수집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유물에 대한 학술적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다.

(2) 보존기능

박물관의 보존기능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아무리 중요한 유물을 수집한다고 이를 잘 보존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요한 문화재는 대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의 공익을 위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수 있게 항상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 많은 대학박물관의 시설이 이를 뒷받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요한 유물들은 충분한 공간을 갖고 있는 격납고에 적당한 온습도에 맞추어 잘 보관하고 화재·도난·훼손·병충해로부터 잘 보호해야 한다. 점차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많은 대학박물관이 독립건물을 이미 확보하고 있거나, 새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 것은 대학박물관의 발전과 사회참여를 위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유물을 보존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박물관의 보존과학실이다. 유물을 일단 수집한 다음에는 이들을 과학적으로 잘 보존해야 하며, 특히 발굴을 통해 수집된 유물들은 지체하지 말고 보존과학실에서 처리하여 영구 보존토록 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박물관들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박물관의 이러한 시설이라고 보겠다.

(3) 연구기능

이 기능 또한 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이며, 학술적인 연구기능을 의미한다. 중요한 문화재를 아무리 수집하고 보존을 잘 한다고 하여도 이를 학술적으로 충분히 연구하여 유물의 학문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규명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유물들의 정실문화

적 가치는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도 학생과 일반 대중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없다. 따라서 박물관의 연구기능은 다른 기능 못지 않게 매우 중요하며, 앞에 설명한 기능과 함께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의 발판을 만들어 주고 있다. 박물관의 연구기능은 대략 유적에 대한 연구와 유물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유적에 대한 연구는 주지하다시피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로 구분되며 지표조사는 유적과 유물을 찾기 위한 예비조사이고 발굴조사는 유적과 유물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조사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유적과 유물이 발굴되어 학술적으로 그 내용이 밝혀지게 되면 이러한 것은 바로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발굴조사는 유물수집의 한 방법이라고 위에서 설명하였는데, 처음부터 박물관이 유적에서 유물을 찾아내어 학술적으로 연구한 다음 이 모든 것을 전시와 교육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면 그 보다 더 효과적인 일은 없다 하겠다. 한편 유물에 대한 연구는 박물관에서 수집한 모든 종류의 유물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모든 것을 연구 정리한 다음 그 내용을 역시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게 된다.

IV. 社會文化的 機能 2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 중 지금까지 언급한 것 이외에 2개의 중요한 기능이 더 남아 있는데, 그것은 展示기능과 教育기능이다. 대학박물관이 아무리 수집·보존·연구기능을 잘한다 하여도 展示教育기능을 잘하지 못한다면 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도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박물관의 전시 교육기능은 社會文化的 機能의 핵심을 이루기 때문에 박물관의 다른 기본적인 기능과 따로 분류하여 社會文化的 機能 2에 포함시켰다.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물관의 여러 기능이 단계적 또는 유기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이루어질 때 가능한데,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으로는 사회교육적 측면이 강조되고 문화적 기능은 박물관 시설 자체가 文化施設이며, 또 박물관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행사가 문화행사에 속하므로 여기서는 따로 박물관의 文化的 機能은 설명하지 않겠다.

(1) 전시기능

대학박물관의 전시기능은 여러 기능 중에 학생이나 일반 대중들을 직접 상대해야 하는 기능이므로 사회문화교육적으로 파급되는 영향은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아서 박물관의 기능은 전시기능이다라고 할 정도로 일반대중들은 생각하기 쉽다. 박물관의 전시기능은 전시방법과 운영에 따라 여러 가지 특징있는 전시로 나타나며 전시효과도 다르다. 전시방법 즉 여러 종류의 전시자료를 어떤 방법으로 전시하느냐에 따라 종합적인 전시와 전문적인 전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綜合的인 展示는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전시자료를 시대별 또는 분야·종류별로 골고루 모두 전시하는 것이고, 전문적인 전시는 여러 종류의 소장품 가운데 제한된 분야, 즉 전문분야의 자료들만 모아서 전시하는 것이다. 전시운영에 따라 나타나는 전시로는 常設展示와 特別展示가 있는데, 상설전시는 어떤 종류의 전시자료를 갖고 어떻게 전시를 하든간에, 즉 종합적인 전시이

든 전문적인 전시이든 박물관에 항상 같은 상태의 전시를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특별전시는 박물관에서 특별한 전시자료가 있을 때 이를 따로 전시하는 것이며, 주로 학내외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특별전을 준비한다. 금년에 개최한 국가적인 행사인 86 아시안게임의 文化行事에 대학박물관들이 특별전을 연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86아시안게임 때에는 각 대학박물관의 사정 때문에 10개 대학박물관 밖에 특별전에 참가하지 못하였는데, 다음 88 올림픽대회 때에는 대학 박물관이 모두 참가하여 박물관 자체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가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박물관에서 실제로 전시를 할 때는 관람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즉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일반에 이르기까지 관람객의 계층이 다양하므로 전시수준과 유물설명서를 이들에게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나 연구가를 위해서는 언제나 자유롭게 유물에 접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야 되겠다. 또 전시의 효과를 더 내기 위해서 復元圖나 모형 기타 전시설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기능

대학박물관의 전시기능은 교육기능으로 이어지지만 전시활동 이외에 대학박물관의 교육기능으로 말할 수 있는 교육활동은 크게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교육은 주로 학생들을 위해 박물관의 전시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밖의 교육활동은 사회교육에 해당하는 활동과 동일하다. 사회교육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박물관의 전시활동과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소위 평생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정책의 하나로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원만히 영위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꾸준한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박물관에서의 사회교육은 館內에서 하는 것과 館外에서 하는 것 2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박물관 안에서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은 각종 집회, 연구토론회, 강연회 등이 있고, 강연회에는 교양강좌와 특별강좌가 있을 수 있다. 또 관람객들이 전시자료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각종 보조자료 즉 녹음테이프, 사진 판넬, 가이드북, 팸플렛, 핸드북, 그림엽서, 포스터, 해설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중에 인쇄물이 가장 많이 쓰인다. 또 박물관의 사회교육에서 중요한 분야의 하나는 박물관이 하는 각종 행사를 일반에게 소개·홍보하고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주로 신문, 라디오, TV 등 일반에게 널리 신속하게 알릴 수 있는 대중매체를 이용한다. 박물관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평생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각 대학박물관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수시로 招致하여 이들에게 실물을 보여줌으로써 산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여해야 한다. 그밖에 박물관의 館外교육은 대학박물관에서 실제로 行하기 어렵지만 車를 이용한 이동박물관이나 박물관 전시품의 貸與展示같은 것이 있다. 지금까지 대학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을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보았다.

그리고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실제로 파악하기 위해 각 대학박물관에 돌린 설문지의

내용을 통계 처리한 결과를 정리하여 지금부터 그 실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설문지의 항목은 모두 5개이며, 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과 밀접한 것이다. 58개 회원교에 보낸 설문지 가운데 응답해 준 곳은 50개교이다.

1) 년평균 관람인원

년 도	응답회신 박물관수	학 내	타대학·일반인	계
1984	35	62,130	165,592	227,722
1985	38	70,787	148,115	218,902
1986 1학기	37	34,666	60,773	95,439

설문지를 보내 준 50개 대학박물관 중에서 1984년 관람인원의 통계를 보내 준 대학은 모두 35개교이며, 이들의 총 관람인원은 227,722명으로 평균 한 박물관에 6,506명 정도이다. 관람인원 중 학내는 전체의 27.28%이며, 타대학 및 일반인 즉 학외는 전체의 72.72%이다. 그러므로 대학박물관이 사회교육적으로 과거보다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4년 관람객이 1,000명 이하인 박물관은 7개교, 10,000명 이상인 곳은 4개교이며, 한 박물관에 최고로 많이 온 관람객은 47,000명, 최하는 320명이다. 1985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관람인원이 약간 줄은 상태이다. 1985년 관람인원의 통계를 보내 준 대학박물관은 모두 38개교이며, 총 인원은 218,902명으로 평균 1대학에 5,760명이 관람한 셈이다. 총 관람객 중 학내는 전체의 32.33%, 학외는 67.67%로 역시 밖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와서 1984년 보다 약간 수치가 떨어지지만 여전히 대학박물관이 사회교육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도에 한 대학박물관에 관람객이 1,000명 이하인 학교와 10,000명 이상인 학교의 수는 동수인 각각 6개교이다. 그리고 1박물관에 최고로 많이 온 관람객은 56,000명이요 최하는 370명 수준이다. 1986년도에는 1학기에 관람한 인원만을 통계처리하였는데 통계를 보내 준 대학박물관은 모두 37개교이다. 1986년 1학기동안 대학박물관을 관람한 총 인원은 95,439명이며, 평균 1대학 박물관에 2,579명이 다녀갔다. 총 관람인원의 36.32%가 학내이고, 63.68%는 학외에 해당한다. 1986년 1학기에도 대학박물관을 다녀가는 사람들은 본교학생보다 타대학 및 일반인들이 많이 관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제는 대학박물관이 사회문화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점점 뚜렷해진다. 또한 대학박물관에 1986년 1학기 동안 관람인원이 500명 이하인 대학은 8개, 5,000명 이상인 대학은 3개이며, 한 대학박물관의 최고 관람인원은 30,500명 최하는 93명으로 나타났다.

2) 초·중고등학생에게도 박물관을 공개하는지의 여부

설문지에 응답을 해 온 대학박물관이 모두 50개교 중에서 초·중고등학생에게도 박물관을 공개하는 것이 40개, 공개하지 않는 박물관이 10개로 대부분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3) 초·중고등학생의 관람자 수

먼저 초·중고등학생에게도 박물관을 공개한다는 대학박물관이 4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984

년부터 1986년 1학기까지 관람인원의 통계를 하나도 적어 보내 주지 않은 곳이 14개가 있으며, 이는 공개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통계를 낼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이든지 아니면 통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한편 통계를 낸 박물관의 수는 26개인데 1984년부터 1986년 1학기까지 낸 통계 중에서 또 누락된 것이 많다. 전체적인 통계는 다음과 같다.

년 도	통계 제출 박물관 수	초·중고등학생총관람수
1984	22개교	48,275
1985	23개교	66,560
1986년 1학기	22개교	25,113

초·중고등학생에게도 공개를 한다고 통계를 낸 26개 대학박물관 중에서, 1984년도에 해당하는 통계를 집계한 학교는 모두 22개교로 4개교가 누락되어 있으며, 초·중고등학생의 총 관람인원은 48,275명으로 같은 해 총 관람인원의 21.19%를 나타낸다. 또 학외의 관람인원 중에서는 29.15%를 차지하여 외부에서 오는 관람객의 3분의 1 가량이 초·중고등학생인 것을 알 수 있다. 1985년도에 해당하는 집계자료를 낸 학교는 23개교이며, 초·중고등학생들의 총 관람인원은 66,560명에 달한다. 이 수치는 同年 전체 관람객수의 30.40%를 나타내며,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수자이다. 1985년도에 외부로부터 대학박물관을 다녀간 학외 관람인원 중에서 초·중고등학생은 44.93%를 차지하여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데, 이는 대학박물관이 점차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교육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6년도 1학기에 해당하는 통계자료를 보낸 대학이 22개교이고, 초·중고등학생의 총 관람인원은 25,113명으로 전체 관람객의 26.31%를 나타낸다. 그리고 이것은 1986년 1학기에만 해당하는 통계자료이지만 학외 관람인원의 72.44%를 차지하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는 외부관람객의 대부분이 초·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며 그 수가 증가일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대학박물관의 활동을 학교와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한 인쇄물 준비

학생과 일반대중에게 대학박물관의 전시와 교육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이해시키는데 필요불가결한 인쇄물 즉 팜플렛, 가이드북, 핸드북, 포스트카드, 기타 등을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태를 50개 대학박물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의 5가지 종류의 인쇄물 중 한 가지도 준비 안된 대학박물관이 예상외로 많아서 전체의 56%를 차지한 28개교, 한가지만을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32%인 16개교, 2가지 종류의 인쇄물을 이용하고 있는 박물관은 6%로 3개교, 3가지 종류는 2개교로 전체의 4%, 4가지의 인쇄물을 준비하여 다양하게 쓰고 있는 대학박물관은 2%로서 단 1개교가 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이 실제로 학생과 일반관람객을 위해서는 한 가지 종류의 인쇄물이라도 준비하여 박물관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도 대학박물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많은 박물관이 예산문제로 인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차 대학박물관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일단 여기서 문제를 제기해 두는 바이다.

5) 대학박물관이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시, 도)과의 관계

이 항목은 대학박물관이 지역사회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하려면 有關機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서로 도움이 되고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에서 실태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응답해온 50개의 대학박물관 중에서 시, 도와의 관계가 밀접하다고 한 박물관은 전체의 26%인 13개교이고, 소원하다고 한 박물관은 30%인 15개교이며, 관계가 거의 없다고 말한 곳은 44%인 22개교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의 행정기관과 관계유지가 잘 되는 곳은 전체의 26%이고 나머지 74%인 대다수가 관계기관과 거리가 멀거나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박물관이 앞으로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박물관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안되므로 차츰 행정당국과 관계개선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는다.

V. 結 論

今年 韓國大學博物館協會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협회에서는 대학박물관의 기능과 사명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과 사회기여를 위해 학술발표와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筆者는 대학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에 대해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 기능은 바로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을 통해 대학박물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몇 가지 이론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먼저 1985년 12월말을 기준으로 韓國大學博物館協會에 會員으로 가입되어 있는 전국 58개 대학박물관을 대상으로 이들이 박물관 활동을 통해 地域社會에 教育文化的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배경을 中心으로 大學博物館의 現況을 파악하였다. 현재 이 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학박물관까지 합하면 60개가 넘는 대학박물관이 전국의 市道에서 活動中인데 특히 京·公립 박물관 등이 없는 곳에서는 이들의 社會文化的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부분의 대학박물관은 전시품의 종류가 다양한 종합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면서 특정분야의 전시자료를 갖고 있어 전문박물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박물관도 적지 않다.

대학박물관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서울지역으로 전체의 38.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22개가 있다. 이곳에는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대학박물관이 다양하게 많이 있으나, 서울지역의 고유한 文化歷史 등을 대표할만한 소장품을 갖고 있는 박물관은 드물어 앞으로 이를 연구 수집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두번째로 대학박물관이 많은 곳은 부산·경남지역이며 전체의 15.52%로 모두 9개가 있다. 세번째는 대구·경북지역인데 전체의 10.34%로 6개의 대학박물관이 있다. 네번째는 강원·충남·전북지역으로 각각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으며, 4개씩의

대학박물관이 있다. 다섯번째는 인천·경기지역과 충북지역이며, 각각 3개씩의 대학박물관이 있고, 전체의 5.17%씩을 나타낸다. 여섯번째는 전남지역으로 전체의 3.45%이고 2개의 대학박물관이 있다. 일곱번째는 제주도지역이며, 1개의 대학박물관으로 전체의 1.72%를 보여 준다. 현재 각 지역에 있는 대학박물관들은 주로 자기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 등 모든 관계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으로 이어져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각 대학박물관이 그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문화적 배경에 적합한 박물관 활동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느냐가 하나의 과제이다.

둘째,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을 사회문화적 기능 1과 사회문화적 기능 2로 구분하였고, 전자에는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 즉 수집·보존·연구 3가지를 포함하여 설명하였다. 박물관의 기본적인 기능들이 단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서로 조화가 될 때,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특히 박물관의 수집·보존·연구기능은 표면적으로 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바탕이 되는 중요한 기능이다. 이 3가지 기능이 박물관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단계인 전시와 교육 기능이 마비되어 결과적으로 박물관의 社會文化的 機能은 불가능하게 된다.

셋째, 대학박물관의 사회문화적 기능 2에는 박물관의 전시·교육기능을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실제로 박물관의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은 전시와 교육활동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물관의 전시·교육기능은 社會文化的 機能의 핵심을 이룬다.

네째, 이상의 이론적인 것을 바탕으로 대학박물관의 현실적인 사회문화적 역할을 직접 통계자료로 뽑아 보았다. 설문지에 응답해 온 대학박물관의 총 수는 50개교이며, 요약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984년 전국의 대학박물관을 관람한 총 인원은 227,722명으로 평균 한 대학박물관에 6,506명이 다녀갔으며, 이 숫자는 지역사회에서 대학박물관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외부에서 온 관람객이 주류를 이루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는 증거이다. 1985년의 총 관람인원과 1986년 1학기의 총 관람객은 전체적인 비율로 비교해도 대체로 같은 현상임을 알 수 있다.

(2) 대부분의 대학박물관(80%)이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박물관을 공개하여 사회교육에 이바지하고 있다.

(3) 초·중고등학생이 대학박물관을 다녀간 수는 1984년 총 학의 관람인원의 약 30%를 차지하고 1985년과 1986년 1학기에는 이숫자가 더 늘어 각각 45%와 72%를 차지하고 있다. 즉 대학박물관을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들이 매년 더 증가하며 이를 산 교육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4) 대학박물관이 사회교육과 박물관 활동을 널리 알리고 이해시키는데 필요한 인쇄물들은 많은 대학박물관(44%)이 1가지씩은 준비하고 있으나, 절반(56%)이 넘는 학교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문제이다.

(5) 대학박물관이 있는 지역의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대부분의 대학박물관들이 이들과 관계가 소원하거나 관계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다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이들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한국대학박물관이 안고 있는 문제는 많지만 사회문화적 기능면에서 한 해가 다르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데, 이들의 사회교육과 문화활동의 중요성을 관계당국에서는 인정하고 후속 조치로서 文敎部의 敎育基準令에 다시 대학박물관에 관한 사항을 부활시키는 것이 대학박물관의 발전과 사회기여를 위해서도 시급히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하겠다.

1986. 12. 11